

## 시간과 역사에 따라 변하는 공간을 읽다

November 25, 2011 | 박혜준 리포터

page 1 of 1

**전시** 칸디다 회퍼 사진전

# 시간과 역사에 따라 변하는 공간을 읽다

“나는 공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, 그곳에 놓여진 사물들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, 그리고 이러한 공간과 사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담아내고 싶다” - 칸디다 회퍼, 2000

세계적인 독일 사진작가 칸디다 회퍼의 개인전이 11월 25일부터 한 달간 국제갤러리에서 개최된다.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는 2009년에 제작된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노이에미술관 시리즈 12점과 2010년에 제작된 일부 근작이 소개된다.

이 시리즈의 피사체가 된 노이에미술관은 1999년 유네스코의 세계

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슈틸러(Friedrich August Stüler)의 설계로 1841년부터 1859년까지 총 18년간에 걸쳐 완공된 프러시안 건축양식의 기념비적 건축물이었다. 하지만,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심하게 파괴되어 60여 년 간 폐허로 남겨져 있었으나 1997년 복원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에 의해 복원, 보수된 이후 2009년에 본격적으로 재개관하였다.

본래 건물의 건축 양식과 수차례에 걸친 전쟁을 비롯해 구 동서독 체제가 남긴 상흔을 담고 있는 미술관의 면모를 이번 칸디다 회퍼의 노이에미술관 연작을 통해 역사적



인 공간의 변천사 및 유물론적 관점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.

문의 (02)735-8449 [www.kukje.org](http://www.kukje.org)

박혜준 리포터 [jennap@naver.com](mailto:jennap@naver.com)